중생 곁 지키며 행복 전하는 존재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⑳ 길상과 자비의 상징, 사슴


바르후트 스투파의 녹왕본생 부조상(인도 기원전 1~2세기, 콜카타 인도박물관).


돈황 제257굴 벽화 중 사슴왕과 인간왕의 만남 장면(중국 위진남북조 4~5세기).


사슴을 탄 수성노인도(조선 후기, 국립민속박물관).


조선왕실 십장생 병풍에 표현된 사슴(조선 후기, 국립고궁박물관).

신령스러움·이상세계 상징으로 여겨져
십장생 중 하나로 장수와 불사 나타내
전생담서 위험 속 중생 위한 자비심도
신성함과 중생구도 위한 행복의 매개체

사슴은 150여 종이 넘고 남극과 호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분포한다. 지금도 시골 뒷산만 가면 사슴과 노루, 고라니가 지천에 뛰놀고 있으며, 도심에 출몰한 야생 사슴 소식은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슴은 우리 문화 속에서 신령스러운 동물이기도 하다. 숲속을 뛰어다니는 자유로운 영혼인 사슴은 자연과 동화된 생명체로 우아한 곡선미를 뽐냈으며 그 아름다운 자태는 숭상받기에 충분했다. 또한, 머리에 달린 기다란 뿔은 예로부터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인식됐고 신라 금관 등 여러 문화유산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관념은 점차 사슴이 긴 수명을 가진 존재로 여겨져 십장생(十長生)의 구성원으로, 신선들과 함께 노니는 친구의 모습으로 미술 속에 표현됐다. 불교문화에서 사슴은 석가모니 부처님 설법(說法) 장면에 등장하고 불국토를 자유롭게 노니는 이상세계의 상징으로도 여겨진다. 온순하고 겁이 많기로 소문난 사슴들이 초원을 마음껏 뛰노는 장면은 그곳이 안락하고 평안한 지상낙원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장수의 아이콘, 십장생의 사슴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은 해·달·산·물·바위·소나무·불로초·거북·학·사슴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일본의 민속학자 아키바 다카시(秋葉隆, 1888~1954)는 십장생에 대해 "이 민속은 조선 사회에 존재하는 '경로민속'으로 볼 수 있으며 중국에는 십장생이라는 말이 없고 이에 관한 그림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십장생이 연장자를 공경하는 오륜(五倫)의 장유유서(長幼有序)와 길상이 융합하여 탄생한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인 것이다.

이 가운데 사슴은 거북, 학과 함께 십장생 중 동물계의 대표다. 사슴이 장수를 상징하는 이유는 수려한 용모와 높고 신비로운 형상의 뿔, 재빠른 몸놀림 등 덕분인 것 같다. 옛 기록 속에 사슴은 장생을 상징하는 불로초(不老草)만을 먹기에 불사의 경지에 이른다고 했으며 〈술이기(述異記)〉와 〈포박자(抱朴子)〉 등 여러 기록에는 사슴이 1000년이 지나면 청록(靑鹿)이 되고, 500년이 지나면 백록(白鹿)이 되며, 여기서 500년을 더 살게 되면 현록(玄鹿)에 이른다고 했다. 방금 언급한 세월만 합쳐도 무려 2000년이니, 사슴이 지닌 불사의 능력이란 실로 엄청난 위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사슴이 포함된 십장생도(十長生圖)는 병풍으로 제작돼 조선 왕실 잔치에 빠지지 않고 설치됐고, 민화(民畵)로도 가장 인기 많은 주제였다.

장수의 상징인 사슴은 불로불사의 존재인 신선들과도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예문유취(藝文類聚)〉에는 노자(老子)가 흰 사슴을 타고 세상에 강림했다고 했으며 〈열선전(列仙傳)〉에는 한중(韓衆)이라는 신선이 흰 사슴이 끄는 백록거(白鹿車)를 타고 다녔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문인 임제(林悌)의 〈남명소승(南溟小乘)〉과 김윤식(金允植)의 〈운양집(雲養集)〉에는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白鹿潭)에 서린 신선과 흰 사슴에 관한 전설이 기록돼 있다. 백록담이 '흰 사슴이 노닌 연못'이라는 뜻을 지닌 것처럼 높게 솟은 한라산 정상이 신선과 흰 사슴이 노니는 이상세계로 생각한 것이다. 이를 보여주듯 지난 글에서 소개한 장수의 신 수성노인(壽星老人)과 풍수지리의 시조로 알려진 청오자(靑烏子) 등 여러 신선을 표현한 신선도에는 사슴을 동반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본생담의 사슴왕, 자비와 희생의 상징

불교문화 속 사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기도 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다룬 〈본생담(本生譚, jātaka)〉 중에 사슴왕 설화가 있다. 아득히 먼 옛날, 부처님은 수많은 무리를 거느린 금빛 찬란한 사슴왕이었다고 한다. 항상 사람들의 사냥감이었던 사슴 무리는 매일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마을과 동떨어진 깊은 숲속에 숨어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슴왕이 무리와 함께 강가에서 목을 축이던 중 물에 빠져 급류에 떠내려가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 사슴왕은 평소 사람들을 두려워했지만 즉시 저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측은지심이 들었다. 이에 사슴왕은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은혜와 의리가 없으니 어려운 지경에서 벗어나면 왕을 해칠 것"이라는 까마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 그를 등에 업고 나왔다.

곧 정신을 차린 그는 자신을 구해준 사슴왕에게 목숨을 얻었으니 곁에서 시종이 되겠다고 큰 절까지 했다. 그러자 사슴왕은 보답할 필요 없으니 다른 이에게 자신을 만난 이야기만 하지 말라고 부탁하며 그를 돌려보냈다. 그로부터 얼마 뒤, 한 나라의 여왕이 금빛으로 빛나는 사슴 꿈을 꾸게 됐고 왕에게 꿈속 사슴을 갖고 싶다고 졸랐다. 이에 왕은 금빛으로 빛나는 사슴을 잡아온 자에게는 큰 상금을 내리겠다고 선포했다. 이 소식을 들은, 물에서 구출된 그 사람은 욕심에 눈이 멀어 궁전으로 찾아갔고, 왕의 군대와 함께 숲속으로 쳐들어갔다. 이 소식을 들은 사슴왕은 두려웠지만 자신 때문에 무리까지 위험에 빠트릴 수는 없었기에 숲에 사는 모든 동물과 사슴 무리를 대피시켰다. 이윽고 왕의 군대들은 곧 사슴왕의 거처까지 접근했다. 그 사람은 곧 온 사방을 비추는 사슴왕의 황금 빛줄기를 발견했다. 이에 왕과 군대에 "저기 있는 것이 바로 금빛 사슴왕입니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두 팔을 활짝 펼쳐 사슴왕이 있는 곳을 가리켰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괴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사슴왕의 위치를 가리킨 그의 두 팔이 '뚜둑'하더니 그만 잘린 것이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을 본 왕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에게 어찌 된 것인지 물었다. 자신이 어긴 약속과 배신 탓임을 알게 된 그는 여태껏 있었던 모든 일을 왕에게 이실직고했다. 이에 분노한 왕은 그에게 큰 벌을 내린 후 사슴왕과 대화를 나누며 함께 성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궁궐 앞에 사자좌(師子座)를 설치해 장엄한 뒤에 사슴왕을 모셨다. 이에 사슴왕은 모든 백성에게 설법을 베풀었고 설법을 들은 이들은 감동하여 불교에 귀의해 다시는 헛된 살생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녹왕본생(鹿王本生)〉이라 불리는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 중 사슴왕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은혜를 저버렸던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자 배신자인 제바달다(提婆達多)의 전생이었다고 한다. 현재 수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녹왕본생〉은 권선징악(勸善懲惡)이라는 기본적인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불교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자비와 희생정신, 그리고 중생구도의 성격까지 깔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마치며

특별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다. 그 대상을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고,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그 희소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별천지의 세상이 다른 이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세상일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우리에게 굉장히 흔한 대상이 다른 이들에게는 생전 처음 접하는 신문물일 수도 있다.

불교문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 가운데 사슴이 바로 이런 사례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슴은 때로는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됐고, 때로는 부처님을 상징하기도 했으며 장수와 길상이라는 행복의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짐을 덜어주곤 했다.

비록 용과 봉황처럼 거창한 스케일을 지닌 동물은 아니지만 항상 우리 곁을 지켜주었던 사슴. 특별함과 행복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고마운 존재인 것 같다.



김용덕 작가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